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교회
SEGWANG CHURCH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 앙 고 백 인 도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5:43-48 다 같 이

-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 씬 “서로 사랑하라” 말 은 이
찬 송 430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자비를 빼고 불교를 논할 수 없듯이 사랑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같이”입니다. “같이”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면 더도 말고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43)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율법에 있을법한 말씀 같지만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분이라 원수 갚을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한다면 사랑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44절)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우선, 기도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만나고 본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기도는 만나지 않고도 직접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들으시고 원수의 마음을 나와 같은 심정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 중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묵묵히 그분을 위해 기도 하십시오. 사랑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라”입니다. (48절)

“온전하라”의 다른 말은 “완전하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계명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거울삼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온전하라”는 말씀은 완전하신 주님을 거울삼아 자기 잘못을 날마다 비추어 보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이 좋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몰래 원수를 위해, 미워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 어떨까요? 지난 사소한 감정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가족 만났을 때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완전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